

톨루엔 · 자일렌 “배출기준 강화”

환경부, 악취물질 배출 철저히 감시 ... 2010년까지 23종 포함

2004년 2월부터 반월 · 시화공단의 악취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의 악취 개선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법 시행령을 마련해 2005년 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4월30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반월 · 시화공단이 폐기물 처리, 염색, 금속, 화학 등 총 5221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주변농지의 축분 때문에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악취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8종으로 지정된 악취발생물질 수가 2005년 2월까지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등 5개 물질이 추가돼 모두 13종으로 늘어나고 2010년까지 톨루엔, 자일렌 등을 포함해 23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악취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기업, 염색공장, 피혁공장 등에 대한 악취발생 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4/05/03>